2025년 7월 4일 금요일

광주디자인진흥원, 10일까지 소상공인 디자인 컨설팅 접수

광주디자인진흥원이 고금리와 소비위 축,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자영업·소상공인을 위한 디자인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.

이 사업은 골목경제 주역인 자영업·소 상공인의 디자인 애로 해소와 디자인 고 급화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높이고, 매출 향상과 골목상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

음식업, 소매업, 서비스업 등 지역 자영 업・소상공인의 특성에 비춰 홍보・인쇄물, 간판 등 사인류, 포장류 등에 대한 디자인 상담과 개선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.

지원 대상은 광주에 사업자가 등록된 10인 이하 사업체이며, 유흥・사행성 업종 (주류판매업 포함) 및 대형 프랜차이즈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.

지원에 따른 비용은 무료이며,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광주디자인진흥원 누리 집(www.gdc.or.kr)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10일까지 이메일(osy 9068@gdc.or.kr)로 접수해야 한다.

이와 함께 광주디자인진흥원은 '온라인 디자인 비즈니스 플랫폼'도 구축한다.

디자인 플랫폼은 디자인 수요층(중소 기업, 자영업·소상공인)이 제품디자인, 시각디자인, 포장디자인 등 전문기업에 대한 데이터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 송대웅 기자 sdw0918@

ECONOMY 전남 이모빌리티, 인도네시아 공략

발리에 시장개척단…지방정부와 산업생태계 조성 협약 9개 기업 수출상담회서 871만 달러 규모 협약 성과도

계 3위 이륜차 보유국인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에 나서 현지 실증 업무협력과 252만 달러 수출협약 등 성과를 거뒀다.

전남도는 영광군, 한국자동차연구원, 전남테크노파크,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 협회. 이모빌리티 9개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시장개척단을 지난 6월 27일까지

전남도가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해 세 4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 파견했다.

인도네시아는 세계 3위의 이륜차 보유 국으로 자동차보다 6배 많은 1억 1000만 대의 이륜차를 보유한 매력적인 시장이 다. 시장개척단은 △발리 지방정부와 이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(MOU) △기안야르시, 수카와티 데사와 이모빌리 티 산업발전 협력 의향서 (LOI) 체결 △현



이모빌리티 시장개척단은 최근 세계 3위 이륜차 보유국인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에 나서 발리 지방 정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.

지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 인도네시 아 이륜차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섰다.

전남도 등은 발리 지방정부와 업무협약 을 통해 △기술표준 수립 △관련 전문가와

지식 교류 △정부 지원 프로젝트와 공공자 금 확보 등 이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 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.

또한 발리 지방정부 산하기관인 기안야 르시, 주민협의체로 구성된 수카와티 데 사와 충전 인프라 설치, A/S 시스템 운영 등 케이(K)-모빌리티 해외실증 사업 추 진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.

22개 현지 바이어 기업과 ㈜에이치비, ㈜로웰에스엠 등 전남 9개 기업이 참여한 수출상담회에서는 농업용 전기운반차, 전기이륜차, 전기차 충전기 등 총 48건, 871만 달러 규모의 상담 성과를 올렸다.

특히 ㈜위커는 전기이륜차 개조, ㈜조 이은 모빌리티 충전과 태양광 가로등. 씨 에이치모터스와 ㈜에이치비는 삼륜형 전 기이륜차 관련 제품으로 총 252만 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했다.

이현규 기자 gnnews1@gwangnam.co.kr

광주·전남 모래 품귀···레미콘 중단 위기

지역내 채취량 적어 남원·고창·거창 등 원거리 조달 가격 폭등에 공사 차질 우려···"인·허가 대책 세워야"

광주와 전남 지역 건설현장에 위기감이 있는 실정이다. 커지고 있다.

시피 하면서 중소 레미콘업체들이 타지에 서 모래를 공수하고 있지만, 가격 폭등과 지 제기되고 있다.

3일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따 르면 최근 일부 업체는 관급공사 물량을 배정받고도 모래가 없어 납품을 포기하고

업계에서는레미콘에서모래가차지하는 지역 내 모래 채취지가 거의 사라지다 비중이 최대 40%에 달해 수급이 막히면 출 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입은 모은다.

공급 불안정으로 인해 생산 중단 우려까 은 상당하다. 레미콘 1루베(㎡)의 무게는 2300kg인데, 모래 중량이 40% 가량 (800~1000kg)을 차지한다. 시멘트 350~ 400kg, 자갈 800~1000kg이 섞인다는 점 을 감안했을 때 모래 비중이 절대적이다.

특히 모래는 공급이 일주일 이상 끊기 면 야적장 재고가 바닥나고 결국 레미콘 생산이 멈추는 구조다.

현재 지역 내 모래 채취 현실은 심각한 상황이다. 광주, 나주, 담양, 화순, 장성, 곡성 등지에서는 모래 채취가 전혀 이뤄 지지 않고 있으며, 영광(송산산업)과 함 평(동양산업) 두 곳만 허가를 유지 중이 실제 레미콘에서 모래가 차지하는 비중 나 채취량은 극히 제한적이다.

이에 따라 업체들은 장거리 운송비를 감수하고 전북 남원, 고창, 경남 거창 등 먼 거리에서 모래를 들여오고 있다.

문제는 가격이다.

2020년 1m³당 2만3000원에서 2025년 5 월 기준 3만5000원으로 52.1% 급등했 다. 같은 기간 함평산 모래도 1만5800원 에서 2만7000원으로 70.8% 상승했다.

영업이익률이 5%도 되지 않는 상황에 서 원자재 폭등은 치명적이라는 게 업계 의 설명이다.

또 이 같은 모래 수급난은 광주도시철 도 2호선, 첨단3지구 조성사업, 호남고속 철도 2단계, 강진~광주 간 고속도로 등

장마철 이후 건설 성수기를 앞두고 있 는 상황에서 시공 차질이 본격화될 수 있 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.

업계에서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'인허 가 장벽'으로 본다. 골재 채취 인·허가는 대표적인 수급처인 남원산 모래는 시•군이 담당하지만 주민 민원과 환경단

체 반발 등으로 인해 신규 허가 자체가 지 연되거나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하다.

광주전남레미콘조합은 지난해부터 국 토교통부, 광주시, 전남도에 탄원서를 제 출했고, 올해 4월에는 광주조달청, 함평 군청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.

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관계자 는 "골재 대라을 피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 제 개편이 시급하다"며 "골재수급대책용 주요 관급공사의 공정에도 영향을 줄 가 역을 통해 지역 내수급 대책을 적극 검토 해야 한다"고 강조했다.

> 이어 "골재 수급 불균형은 곧바로 건설 작업 지연 및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" 며 "관계기관의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건설현장 곳곳에서 대란이 불 가피할 것으로 보인다"고 주장했다

송대웅 기자 sdw0918@gwangnam.co.kr



농협 광주본부, '엄마표 우리쌀 메신저' 위촉 광주여협 소속 단체장 24명 아침밥먹기 운동 등 활동

농협 광주본부는 최근 광주시여성단체

밥 먹기 운동 확산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됐다. 홍보대사 역할을 맡게 된다.

협의회 사무실에서 소속 단체 회장 24명 된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(24개 단체, 동참하겠다"고 전했다. 을 '엄마표 우리 쌀 메신저'로 위촉했다고 회원 수 3만7571명)와 농협이 협력해, '엄마표 우리 쌀 메신저'는 범국민 아침 우리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 고, 건강한 식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

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연계해 다양한 홍 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.

이영숙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은 "쌀 이 외면받는 요즘, 쌀밥으로 건강한 광주 이번 위촉은 지역 여성 리더들로 구성 를 만들기 위해 아침밥 먹기 운동에 적극

이현호 농협 광주본부장은 "지역 여성 아침밥 먹기 문화를 일상에 정착시키고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쌀 소비를 확대하 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"고 말했다.

이승홍 기자 photo25@gwangnam.co.kr

"광주신세계 복합개발 협상 착수 환영"

광주상의·광주경총, 도시활력 전환점 기대

부지 복합개발을 위한 협상에 착수한 지는 공간'을 현실로 만들어갈 소중한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 대책 등을

복합개발을 위한 본격 협상에 착수한 - 규모의 특급호텔, 다양한 공공기여 시 - 되면 건설 단계와 운영 단계에서 수 많 것을 환영하며, 지역의 미래에 따뜻한 변화를 가져오는 희망의 신호탄이 되길 광주의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통해 방문객이 늘면 소비지출 증대가 기대한다"고 밝혔다.

앞서 전날 광주시는 광주신세계와 이어 "광주시는 도시계획 과제를 종 것"이라고 강조했다. 1차 협상조정협의회'를 개최했다.

가운데 경제계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. 기회"라며 "지상과 지하가 유기적으로 주문했다. 광주상공회의소는 3일 "광천터미널 연결된 47층 규모의 복합공간과 200실 설이 이곳을 단순한 상업개발지를 넘어 은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상권 형성을 할 것"이라고 설명했다.

'광천터미널도시계획변경사전협상제 합적으로 검토하며 공공성과 사업성을 균형 있게 조율하고 있고, 광주신세계 공인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광주상의는 "연면적 81만4000㎡에 도 사업안을 성실히 보완하며 협의에 상생방안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"고 덧 이르는 이번 개발사업은 광주가 오랫동 임하고 있다"며 "이번 여정이 민관 협 붙였다.

력의 모범 사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한다"고 덧붙였다.

광주경영자총협회도 이날 보도자료 광주시와 광주신세계가 광천터미널 안 꿈꾸어온 '문화와 경제, 삶이 어우러 를 통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교통대책

> 광주경총은 "협상이 계획대로 진행 이뤄져 경제를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

> 아울러 "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소상 송대웅 기자 sdw0918@

